

로마서 5:12 보충공부 2 : 대표론과 실제론

오늘은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된 사실에 대해 공부를 해 보십시오.

로마서 5 : 12 이렇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 오게 되고, 아담의 죄의 전가의 결과로 후손이 죄인이 되어 모두 함께 죽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도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전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조상이 지은 죄에 후손이 함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공정하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신명기 24 : 16¹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윗 구절에 대한 반대처럼 보이는 사료^{2, 3})

¹. 겔 18 장에서 자세한 해설이 나온다.

²민수기 16 : 32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26:10-11 에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33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 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여호수아서에서는 아간의 자손들도 함께 죽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여호수아 7 : 2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Joshua 7:24-25 (KJV)

And Joshua, and all Israel with him, took Achan the son of Zerah, and the silver, and the garment, and the wedge of gold, and his sons, and his daughters, and his oxen, and his asses, and his sheep, and his tent, and all that he had: and they brought them unto the valley of Achor.

그러면 아담의 죄로 인해 후손이 처벌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담이 최초로 지은 원죄는 후손에게 전가되었지만, 아담의 후손들 각자가 지은 자범죄는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조상의 모든 자범죄가 다 후손에게 후손에게 전가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가 지은 자범죄는 전가가 되지 않으면서, 아담이 지은 최초의 원죄는 전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담이 지은 원죄와 우리가 지은 자범죄는 그 품격과 죄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성경의 대전제가 되는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안에서 아담의 지은죄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7 : 25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5] And Joshua said, Why hast thou troubled us? the Lord shall trouble thee this day. And all Israel stoned him with stones, and burned them with fire, after they had stoned them with stones.

사람들은 아간과 그 자식들을 함께 잡아(his sons, and his daughters,) 아골 골짜기로 가서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무리가 아간은 돌로 치고(stoned him with stones,) 그의 소유는 불살랐지만 (burned them with fire) 그 자식들은 돌로 죽이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³.시편 103 : 17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시편 103 : 18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출애굽기 20 :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0 :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상벌의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원인은 본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데 조상의 죄로 처벌 받지 않고, 조상이 의로운 자라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 본인의 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위의 구절은 본인과 관계없이 조상으로 인하여 무조건 축복과 저주에 참여한다는말이 아니다(겔 18 장 참조).

A. “안에서”

우리가 아담의 지은 죄에 참여 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deal 을 하실 때, 각 개인을 상대로 하여 deal 을 하신 것이 아니고, 대표를 세우시고 그 대표와 deal 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 대표 안에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참으로 하나님 다운 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각개인과 deal 을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쁘셨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연합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연합은 성경 신학 전개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이 연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연합에 대한 사상은 포도 나무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 :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5] I am the vine, ye are the branches: He that abideth in me, and I in him, the same bringeth forth much fruit: for without me ye can do nothing.

사도 바울의 경우

로마서 5 : 15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담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산 것입니다.

이루는 여기서 연합의 성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을 연합되기 하는 공통의 성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류는 멍석위에 펼쳐 놓은 콩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B. 첫사람 아담의 위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어떤 위치에 있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 실제론(Realistic Theory), 대표론(Federal Theology)이 있습니다.

B-1 실제론(Realistic Theory)

실제론은 2 세기에 Turtulian 에서 부터 시작되었는데 Augustinian 이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Augustinianism 이라고도 불립니다. 후에 Calvin (ICR, 11,1-3) Shedd, Strong 등에 의해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포괄적 인류로서 제시되었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진 것이 되어 아담의 죄가 그들의 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⁴.

히브리서 7 : 9 또한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일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히브리서 7 : 10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실제론에 의하면 인류는 첫째 아담 안에 수적으로 종적(種的)으로 통일체로 존재했습니다. 그가 범죄할 때 아담안에 있었던 모든 인류가 함께 범죄한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통일체인 조상으로서 첫아담의 죄는 그 후손에게도 같은 죄를 진것이 되었습니다.

B-2 대표론

아담 한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다는 이유에서 우리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대표가 되었느냐?

아담은 제일 먼저 창조된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대표가 된 것입니다.

대표성과 조선성(祖先性, First Parent) 이것으로 인해 아담은 연약적 머리가 된 것입니다.

대표론은 계약론 또는 직접 전가론이라고 하는데, 연대설의 기원은 홀렌드의 교수였던 코케이우스(Cocceius 1603-1669)가 비롯된 것으로, 역시 홀렌드 교수였던 Turretein(1623-1687)에 의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개혁 교회의 가르침이 되어 루터 교회와 구별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⁵.

Henry Theisen 은 말하길, 어거스틴, 안셀름, 아퀴나스, 칼빈, Edwards 같은 사람은 자연적 수장설(Natural headship theory, 히 7:9-10)을 주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⁴. Gore ST.

⁵. 1. Federal. or Immediate View: Adam's (1) sin is imputed to us, the (2) penal guilt and (3) depravity/corruption inflicted. C.Hodge, L. Boettner.

언약 신학은 그 분명한 성경적 증거를 고전 15:22 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은즉”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에서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 :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1 Corinthians 15:22 (KJV)

²²For as in Adam all die, even so in Christ shall all be made alive.

언약 신학은 아담은 인류의 자연적 시조로써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선악과에 대한 명령에 순종을 하면 영생을, 불순종을 하면 사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과 행위 언약 관계에 들어 갔습니다. 만약 그가 순종했다면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 모두는 영생을 얻게 되었을 것이나,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온 인류는 아담안에서 사망의 저주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약 신학 안에서 모든 인류는 두 아담으로 요약됩니다. 첫번째 아담은 행위언약 하에서 모든 인류의 언약적 머리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아담은 은혜 언약 아래에서 신자들의 언약적 머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언약적 관계에 의해 아담의 죄는 법적으로 효력있는 우리의 죄가 되었습니다. 또 둘째 아담의 의는 법적으로 효력있는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갖는 언약적 관계는 죄책의 전가와 법적 처벌의 바탕이 됩니다.

아담이 실패하자 예수님의 대리적 순종에 대한 믿음의 상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이 언약 신학의 대강의 골자입니다.

B-3 두 이론에 대한 요약

이 두이론은 각자 약점이 있습니다. 실제론은 왜 아담의 원죄만 전가되고 자범죄는 전가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고, 언약 이론의 약점은 행위에 의해 영생을 약속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이 행위언약 이론은 필연적으로 타락 후 선택설을 취하게 합니다. 이 두 신학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더 깊은 공부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끼고 있는 안경을 벗고 남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창문의 뚫어진 틈으로 남의 창이 뚫어진 틈을 보고 흉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C. 영생과 불사성

무엇보다도 영생과 불사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모든 신학적 전개가 불투명해집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라 하십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갖고, 몸이 다시 사는 불사성의 회복은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불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불사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영생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분명한 증거는 첫사람 아담은 불사성을 가졌지만 영생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요일 1:2)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독생자인 예수님께 주셨습니다(요 5:26). 그래서 영생은 종보자인 예수님 안에서,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만을 통해서(요 1:12) 의의 전가로 소유하게 됩니다.

영생은 믿음으로만 가지며 상속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부모가 영생을 가졌다고 그 후손이 영생을 갖는 것도 아니고, 남이 나를 대신하여 믿어 줄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절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 : 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²⁰ We know also that the Son of God has come and has given us understanding, so that we may know him who is true. And we are in him who is true--even in his Son Jesus Christ. **He is the true God and eternal life. 1 John 5:20 (NIV)**

불사성은 영혼의 불사성과 육체의 불사성이 있는데 이 불사성은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전에는 아담이 완전한 불사성이 있었고 타락 후에는 영혼의 불사성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사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소유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영생은 상속될 수 없지만 불사성은 상속할 수 있습니다. 죄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책이라는 말에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죄책은 두가지가 있는데 벌치적 죄책(Actual guilt)과, 책치적 죄책(Potential guilt)이 있습니다. 벌치적 죄책은 죄의 형벌으로서의 죄책인데 다른 사람이 대신 받거나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옛날에 죄를 지어 태형을 가할 경우, 죄인이 너무 늙어 태형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태형을 대신 당할 사람을 돈주고 사서 대신 맞게 하므로 태형을 면제해주는 것 같은 것을 말합니다. 죄의 벌을 남이 대신 받는 것입니다⁶. 이와같이 벌치적 죄책(Actual guilt)으로써 남과 연대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남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벌치적 죄책에 의해 아담의 죄를 우리가 같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불사성의 상실은 이 벌치적 죄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책치적 죄상은 죄지은 자의 마음에 붙어 있는 것으로 양심의 아픔과 같은 것입니다. 책치적 죄상은 죄를 지은 자의 마음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이전하여 그 사람이 대신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⁶. 그러나 아담의 후손의 자범죄의 벌치적 죄책은 대표성이 없다.

이것은 남에게 이전되지 않고 속죄에 의해서도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실을 생각하며 자신이 행악자요 포행자라고 하며 일평생 양심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책치적 죄책을 남겨 두신 이유가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불사성의 상실은 대표와 조선으로서의 아담의 벌치적 죄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조상이 지은 죄에 후손이 함께 참여하여 죄의 벌로 함께 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죽을 자이면 그 후손도 죽게 됩니다. 죄인 가정에서 태어나 죄인이라는 status 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전가론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영생은 마음에 각자가 믿어 의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대신 믿어 줄수도, 나의 믿음을 남에게 이전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상속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너무나 많이 공부한 것이지만

아담이 먹으면 죽으리라 한 것은 불사성을 말합니다. 물질로 부터 온 아담의 몸은 있는 그 자체로서 불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불사성이 유지되며, 그것이 멈추어져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물질로 된 몸은 불사성을 상실하고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은 바로 의미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서라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D. 무슨 죄를 지었나?

창세기 2 :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창세기 2 : 17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불사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계속적으로 먹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불사성을 계속 유지하였을 것입니다. 아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불사성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것은 ‘율법을 지키면 그 의로 살리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은 최초의 율법이며,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하는 것은 나중에 온

율법입니다. 같은 율법입니다. 죽음이 오기 전이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였지만, 죽음이 오고 난 후에는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지속적인 순종의 결과는 불사성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절단되고 흠에서 온 몸에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벌치적 죄책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 이유는, 선악과에는 불사성의 약속이 있고, 선악과를 먹는 경우에는 불사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아담이 모든 인류의 지연적 조상으로, 언약적 대표로 참가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 이후의 후손들이 짓는 죄에는 이런 대표성과 조선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만 각자가 책임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표적 속죄는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이 임한 모든 자들에게 사망에서 해방을 줍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결과로 죽은 자는 모두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와, 각자가 지은 자범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영광과 수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표적 속죄가 모든 죽은 자의 육신의 부활에 대한 논리적 이유가 됩니다.

E.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는데도 영생 취득을 위해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했는가에 대해 misconception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인간이 타락전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은 전혀 필요가 없고, 예수님은 오직 속죄를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전에 아담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잘못된 유형은 타락 전에 예수님이 없어도 선악과를 지속적으로 먹지 않는 순종에 의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사고에는 근본적으로 영생을 잘못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E-1 두번째 유형인 타락전에 예수님이 없어도 선악과를 지속적으로 먹지 않는 순종에 의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영생과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고([요일 5:20 -- 그는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시라](#)) 영생부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즉 영생은 믿음에 의해서만 부여된다는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사실을 영접하는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 :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절은 영생은 믿음에 의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천명하는것입니다. 영생이 믿음에 의해 부여된다고 하면 어떻게 선악과를 지속적으로 먹지 않는 행위에 의해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에 의해 영생이 부여된다고 할 때 이것은 은혜에 의해 영생이 부여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영생이 믿음에 의해 은혜로 부여된다는 말은 조상이 영생을 가졌다고 후손이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었는 영생의 효력을 남과 공유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영생을 가졌다고 해서 아담 안에서 그 후손이 일괄적으로 영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생부여에 대한 약속 : 생명과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직접 주실 수가 없어서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아담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주시기로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생명과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없어도 선악과를 지속적으로 먹지 않는 순종에 의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엔

E-2 타락전에 예수님은 필요없고 예수님은 속죄를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첫번째 오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타락전이나 타락 후나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옳습니다. 요한 사도는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요한복음 1 :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창조전이나 후에나 예수님이 없이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언약에 있어서도 아담이 하나님과 교통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너무도 당연함은 인간과 하나님의 존재적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공에 제한을 받습니다. 피조물과 절대자는 그 존재적 차이가 너무 커 피조물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타락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직접 교제도 못합니다. 중보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전이라고 해서 아담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타락전의 아담이라 할지라도 영생을 얻기 위해 중보자인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예수님 안에서 주시기로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증표가 바로 생명과입니다.

만약 아담이 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기고, 약속된 생명과를 먹었다면,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불사성을 상속한 상태에서 각자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자 못얻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영생을 받으라 외쳐도, 그것을 믿는 자와 안믿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F. 영생에 대한 대표성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만 가지신다.

영생에 대한 대표성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만 가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에 의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믿음의 시험의 관문을 우리를 대표하여 통과하셨습니다. 40 일을 금식하고 주리셨을 때에, 첫사람 아담을 타락시킨 마귀는 다가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유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최후의 순간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 오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우리를 대신하여 믿음으로 pass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